

tvN 새 주말극 '명불허전' 김남길·김아중

400년 뛰어넘은 '명불허전 케미'



김남길

“평소에 침도 많이 맞고요. 한의학에 대해 친숙한지라 속성으로 금방 좀 배웠습니다. (웃음)”

“제가 과거 드라마 ‘싸인’에서 법의학자를 연기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의사 역할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12일 처음 방송하는 tvN 새 주말극 ‘명불허전’에서 조선 최고의 ‘침의’이자 실존 인물인 허임을 연기할 배우 김남길(37)과 홍부외과 전문의 최연경을 연기할 배우 김아중(35)은 1일 서울 노원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같이 웃으며 말했다.

김남길이 연기할 허임은 침통 하나만 들고 하루아침에 현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 한의학 불신론자에 뺏속까지 외과 의사인 최연경(김아중 분)을 만나 온갖 고초(?)를 겪다가 다시 조선으로 타임슬립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게 큰 줄거리다.

김남길은 이번 작품을 통해 2013년 ‘상어’ 이후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게 됐다.

조선시대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교감

홍종찬 PD “유쾌하게 시작해 감동으로”

그는 “그동안 어둡고 고독한 캐릭터를 많이 해서인지 ‘해적’ 같은 코믹 영화를 찍었는데 제가 가진 이미지는 좀 어두운 것 같다”며 “이 작품의 밝은 매력에 끌려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적’의 모습을 어떻게 탈피할지 우려가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톤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요새 워낙 덩디고 하고, 어두운 일도 많아서 대중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준비했다”며 “허임이 과거의 시선으로 현대의 발전한 세상을 보면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부분도 진지하기보다는 재밌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남길은 오랜만의 드라마 복귀에 대해서는 “영화는 두 시간 안팎의 이야기를 파고들고, 드라마는 쪽 풀어가 는 매력 있다”며 “힘들기는 하지만 그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파트너 김아중과 호흡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제가 여배우 복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렇다”며 “아중 씨는 열정이 넘치고 디테일하게 연기하는 사람이다. 다른 배우들보다 그런 점에서 더 특화된 배우라고 생각한다”고 칭찬했다.

이에 대해 김아중은 파트너 김남길에 대해서 “굉장히 ‘이완된’ 배우”라며 “모든 일에 긴장하지 않고, 긴장하더라도 별로 티가 안 난다. 현장에서 여러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자신도 편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다. 배울 점이다”라고 말했다.

김아중은 “수술 용어를 익히는 게 어려웠다”며 “실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도 익히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탁월한 수술 실력에 아름다운 외모까지 갖춘 최연경은 한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한의학을 불신하는 인물로, 400년을 건너뛰어 온 조선 최고의 침의 허임(김남길 분)과 만나게 되면서 삶이 뒤바뀌게 된다.

김아중은 ‘결코러시’라는 수식어가 붙은 최연경 캐릭터에 대해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뭐든지 잘해내는 역할”이라며 “다만 실력은 있어도 아직 환자의 마음까지는 잘 헤아리지 못하는 의사인데 허임을 만나 변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라마의 전체적인 메시지에 대해 “한의사와 양 의사의 대립구도보다는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교감도



김아중

하면서 의사로서 성장해나가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최연경이 의사 가운데서 어떤 멋진 차림을 하고 클러트로 향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사이다 보니 의상이 너무 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절하고 있다”고 웃으며 “클러트에 가는 것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가끔 있는 일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타임슬립이 더는 새롭지 않은 드라마 환경에서 ‘명불허전’은 조선 시대 한의학과 현대 의학의 콜라베이션이라는 차별점을 강조했다.

홍종찬 PD는 “유쾌하게 시작해 감동으로 끝나는 작품”이라고 자신했다.

김남길과 김아중이라는 조합에 큰 관심이 쏠리지만 이외에도 유민규, 문가영, 엄효섭, 서정연, 태항호 등 내공 있는 조연들이 합류한다. 총 16부작으로 12일 밤 9시 첫 방송. /연합뉴스

‘군함도’ 제친 ‘택시운전사’

오늘 개봉... 실시간 예매율 1위

2일 개봉하는 영화 ‘택시운전사’가 ‘군함도’를 제치고 실시간 예매율 1위에 올랐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군함도’는 오후 4시 현재 실시간 예매 점유율 34.8%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사전 예매 관객수는 11만4천40명이다.

‘택시운전사’는 이날 오전 7시만 해도 ‘군함도’와 애니메이션 ‘슈퍼배드3’에 이어 예매율 3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매량이 늘면서 1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현재 예매율 2위(21.3%)인 ‘군함도’와 예매 관객수 격차도 4만명 이상으로 벌었다.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우연히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간 서울의 택시운전사가 그날의 참상을 목격하는 이야기다. ‘홍행 보증’ 배우로 통하는 송강호가 주연을 맡았고, ‘의형제’(2010), ‘고지전’(2011)의 장훈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택시운전사’는 개봉 3주 전부터 전국을 돌며 대규모 시사회를 진행해 이미 8만6천여명이 영화를 관람했고 입소문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이 영화의 배급사 소박스 관계자는 “불과 4시간 만에 예매 관객수가 2만5천명이 몰리는 등 예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택시운전사’ 역시 1980년 5월의 광주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룬 만큼 ‘군함도’의 논란이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군함도 황정민 ‘1억 배우’ 등극

배우 황정민이 자신이 출연한 영화로 1억 명의 관객을 모으는 기록을 세웠다.

1일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정민은 ‘군함도’의 누적 관객이 450만 명을 넘어하면서 자신의 출연한 영화 33편의 합산 관객 수가 1억명을 돌파했다.

황정민이 군함도 개봉 전까지 출연작 32편을 통해 동원한 누적 관객 수는 9763만명이었다. 지난달 26일 개봉한 군함도는 6일간 총 453만5518명을 모았다.

황정민은 “과분한 영광이다. 영화를 통해 관객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는 게 배우의 소임이자 역할이라 생각하며 연기 생활을 했다. 그동안 제 영화를 봐 주신 모든 관객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1994년 뮤지컬 ‘지하철 1호선’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황정민은 1998년 ‘쉬리’로 영화계에 데뷔했다.

‘군함도’에서는 일본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딸과 함께 군함도로 오게 된 약단장 이강욱 역을 맡아 거칠고 투박하지만 진한 부성애를 보여준다. 출연작 중 ‘베터랑’(1341만)과 ‘국제시장’(1425만), ‘김사외전’(970만), ‘히말라야’(775만) 등은 톤보이는 흥행 실적을 올렸다.

‘베터랑’에 이어 작품을 함께 한 류승완 감독은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없었다면 촬영을 끝까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큰 힘이 되어 주었다”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우승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그레이트리리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죽어야 사는 남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재)	00 속보이든TV 인사이드(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7일의 왕비(재)	00 MBC 정오뉴스 20 죽어야 사는 남자(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홍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김성훈 고맙습니다 55 제48회 주계 대학축구 연맹전 결승전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MBC스포츠 MBC꿈나무축구 여름대축제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5 프리파라 2 55 별별머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정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MBC 뉴스M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스토에이지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다시 만난 세계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공감자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여름특집 KBS대기획 디렉터스컷 한국사기 55 숨터	00 7일의 왕비	00 죽어야 사는 남자	00 다시 만난 세계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여름특선영화 (터미네이터:제니시스)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싱글 라이프
12	30 특선 UHD 다큐멘터리 (빅 아이디어)		4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자동차 횡단 7500km 3부 서부의 열기 속으로)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꼬마버스 타요(1)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당동명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엄마 개구리(재)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마시앗 샐러드와 봉골레 크림파스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과학 공부와 인문학 공부)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이퍼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특!톡! 보너하니~4 19:00 어벤저스: 올드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20:50 세계테마기행 (언제나 영화처럼 캄보디아 -인생은 아름다워 톤리사프) 21:30 한국기행 (알려라, 여름 3부 그 마올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21:50 EBS 다큐프라임 (독백의 죽음에 이르는 유혹) 22:45 극한직업 (바다를 누는 사람들)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일 (음 6월 11일 辛酉)

	48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60년생 상당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72년생 장소를 함께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따로따로이다. 84년생 한 번 뱀은 말은 주위 답을 수 없는 법이니 삼사일언 하자. 행운의 숫자 : 75, 84		42년생 걱정 말라. 54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66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부를 것이 아니라, 78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 줌이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다. 90년생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행운의 숫자 : 57, 89
	49년생 형세의 복잡다단함을 먼저 헤아려 볼 일이다. 61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73년생 벌어진 틈을 때우지 않으면 이탈될 수밖에 없다. 85년생 현재 상태대로만 진행하면 더할 나위 없었다. 행운의 숫자 : 15, 92		43년생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55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67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떤 해도 비껴갈 것이다. 79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지적해야 할 때다. 91년생 양호하다. 행운의 숫자 : 99, 80
	50년생 명분에 그친다면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62년생 지속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커질 것이나, 74년생 잔물결이 행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86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25		44년생 오랫동안 진행될 것이니 장기적으로 대비해야겠다. 56년생 예상했던 바와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68년생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80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행운의 숫자 : 24, 51
	51년생 이동수나 매매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63년생 지난 날의 은원을 모두 잊고 관계를 개선함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75년생 잘 되어갈 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87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29		45년생 흡사해 보이지만 근본 원인부터 다름을 알아야 한다. 57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되리라. 69년생 태산처럼 마도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81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2, 28
	52년생 절할 기회가 없어서 몹시 생소할 것이다. 64년생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가볍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76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자. 88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를 내라. 행운의 숫자 : 15, 92		46년생 마주 보고 대화할 쉽게 풀 수 있다. 58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손해로 이어진다. 70년생 도모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82년생 헛대에 동지거리 넘어가듯이 걸리는데 없이 가볍게 처리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90
	53년생 북받쳐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65년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때다. 77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한다면 뒷일이 수월해지리라. 89년생 진중된 자세를 견지해 나가 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43, 25		47년생 충분한 검토한 결과가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변경해도 무난하다. 59년생 아직 하면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 71년생 가려서 행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다. 83년생 순조로운 진행이 계속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2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